

불의 참지 못하고 무장 항쟁... 지역방위대 편성 지휘

5·18 44주년 - 대봉마을의비극

<4> 문장우 지역방위대장

학운동서 총격전...사복 군인 연행 경찰에 자수...물고문·폭행 시달려 "순수한 대동정신 후세에 알려야"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랴만 불의보고 피한다면 사내 아니다..."

1980년 동구 학운동 예비군 소대장이던 문장우(74)씨의 입에서 오래된 군가가 흘러나왔다. 나이 일흔을 훌쩍 넘겨버린 그가 기억하는 5·18민주화운동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매년 오월이 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입을 위한 행진곡도, 광주 의허공을 갈랐던 총성도 아니었다. 문씨가 5·18 당시 총을 들고 광주 지역방위대장으로 나선 건 죄 없는 광주시민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참지 못했을 뿐이다.

● "그러고도 대한민국 군인이냐"

1980년 5월20일 문씨는 광고대행사 삼보문화사의 광주전남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방에서 친구와 사업계획을 의논하던 중 총장으로 파출소 앞에서 7~8명의 학생들이 공수대원들에게 쫓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학생들을 붙잡지 못한 공수대원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곤봉으로 마구 내려쳤다. 그중 한 공수부대원이 여학생을 붙잡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웃



1991년 문장우씨 모습. 광주 동구의회 제공

이 다 벗겨졌는데도 지하도로 질질 끌고 가는 광경을 지켜봤다. 문씨는 행패를 부리는 공수부대원들에게 "너희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왜 때려!"라고 소리치며 시위에 합류했다. 당장의 일과 처자식이 눈에 밟혔지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두들겨 패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

21일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가 집단발포를 하자 맨주먹으로는 싸울 수 없다 생각해 시민들에게 외쳤다.

"저는 학운동 예비군 소대장인 문장우

입니다. 현재 공수부대가 무차별 발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나 각목 따위로 싸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규합해 나주, 화순, 전남방직, 일신방직 등지에서 무기를 구했다. 문씨는 총을 배분한 후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방위대 12개조를 편성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총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일러줬다.

● 계엄군과 직접 교전 벌여

당시 배고픈 다리(홍림교)를 중심으로 집중배치 후암구호를 정하고 주민들로부터 주먹밥 등 식량을 보급받았다. 교대로 순찰하며 최전방에서 진두지휘를 하던 중 23일 오전 1시30분께 조선대 뒷산의 숙실부락에서 7·11공수여단의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냇가를 건너면서 랜턴을 잠깐씩 비추며 이동했다. 본부와 약 200m 남짓한 거리였고 호산나유치원을 방위하던 6·7조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계엄군 역시 총을 쏘며 접전이 벌어졌다. 30여명의 총격전이 있었고 해가 밝자마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다행히 다치거나 사라진 이는 없었다. 다만 배고픈 다리 난간에 남은 총탄 자국만이 격렬했던 교전을 증명했다.

23일 오전 석가탄신일이었던 21일 증심사로 불공을 드리러 갔던 이들이 하산하고 있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문씨는 시민들 틈에 사복을 입은 젊은 청년 2

명을 붙잡았다.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해 위장한 공수부대원이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을 죽여 버리자고 다같이 입을 모았지만 문씨는 "우리 동포니 죽이지 말자"며 화난 민중들을 달랬다.

이후 도청 순찰반으로부터 무기를 회수하겠다는 요청에 고심이 깊었지만 결국 반납하고 지역방위대는 이틀만에 해산됐다.

● 항쟁 후 끔찍한 고문 시달려

문씨는 "27일 아침 계엄군의 도청 장악 소식을 들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울분에 못이겨 통곡했다"고 설명했다.

항쟁이 끝나고 문씨는 농성동에서 신혼살림을 하던 친구집에서 한 달여간 피신했다. 그러나 본인이 숨어지내는 동안 예비군 중대장이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지원동에 사는 아는 형님을 찾아가 못살게 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국 6월26일 광주경찰서 정보과로 가서 지수했다.

그 후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문씨는 "물고문은 기본이고, 손가락에 불펜을 끼워서 뼈가 드러나도록 짓눌러대고, 온몸을 묶은 채 들것에 실어 불개미가 득실거리는 나무 밑 잔디밭에 던져두기도 했다"며 "피신한 장소를 대라는 형사의 욕박질에 내 목숨은 버려도 나를 숨겨준 친구만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버텼다"고 이야기했다.

지역방위대에 참가한 사람들 또한 끌려

가 하나같이 문씨를 대상으로 지목했기에 그에게 가해지는 고문의 강도는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불려가 고초를 겪었다. 차라리 총으로 죽여달라고 외칠만큼 모진 고통을 이 악물며 참았던 탓에 석방 후에는 양쪽 어금니가 빠져버렸다.

● "5월 대동정신 계승해야"

문씨는 술한 고문 끝에 내란죄로 15년형을 받고 10개월간 수감됐다가 1981년 4월3일 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가정은 풍비박산 나있었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문씨는 1991년부터 5년간 동구의회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5·18 단체의 전신격인 5월 광주민중항쟁동지회 부회장으로, 구속부상자회 이사장,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대학 여러 곳에서 풍수지리학을 강연하고 있다.

문씨는 5·18 단체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80년 5월의 순수했던 대동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쟁 기간 동안 온갖 고문과 옥살이를 겪었던 사람은 거의 사라지고, 사리사욕만을 탐하는 이들이 5월 단체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줌도둑 하나 없던 광주의 대동정신과 이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식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인 기자

대검, 5·18 관련자 115명 '죄안됨' 처분 변경

유죄 183명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신군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한 이후 115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죄안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증거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평택지검 4명, 고양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 각각 2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청주지검·성남지검·제주지검·장흥

지검 각각 1명씩 총 115명이다.

또한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5·18 관련자 177명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2022년 5월 6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가로 청구했다. 현재까지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심리 중이다.

대검은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선원 살해 후 바다 유기한 일당 구속

목포해양경찰이 선원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과 그를 도운 선원을 구속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동료 선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박 청소용 호스로 A씨에게 해수를 쏟는 등 지난 3월부터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정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살인 등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후속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